

집단따돌림이란 다수로 구성된 집단이 소수의 집단성원 또는 개인을 집단적으로 소외시키는 현상이다. 구본용(1999)은 집단따돌림을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왕따, 이지메, 집단괴롭힘, 또래폭력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197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집단따돌림의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예: 강은희, 이은희, 임은정, 2002; 김혜원, 이해경, 2000; 이춘재, 곽금주, 2000).

청소년 보호위원회(2000)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학교 동료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생 9.5%, 중학생 7.5%, 그리고 고등학생이 3.6%로 답해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의 경우 역시 초등학교생 5.6%, 중학생 2.7%, 고등학생 1.4% 순으로 답해 저학년일수록 집단따돌림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최근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생이 중·고등학생보다 학교 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으며 폭력 발생 장소의 47.9%가 학교 교실이였다(조선일보 2004. 01. 13. 참조).

집단따돌림의 피해는 사회부적응뿐만 아니라 우울증, 대인공포증, 자살충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하다. 최근 10여 년간 수행된 장기 종단적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 집단에 의해 거부되었던 아동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며(김윤경, 이옥경, 2001; 최미경, 도현심, 2000),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더구나 또래 집단에게 무시되었던 아동은 성인이 된 이후에 성취동기가 낮은 경향(Wentzel & Asher, 1995)을 보이는 등, 피해자들은 따돌림 당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Parker & Asher, 1987).

이처럼 집단따돌림은 한 개인의 인격성장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된 이후의 대인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chafer et al., 2004). 예를 들어 3개국 성인 884명을 대상으로 한 Schafer 등(2004)의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경험을 가진 아동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따돌림의 유형

집단따돌림은 집단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노성호(2000)는 집단따돌림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영향을 기준으로 (단순)따돌림, 놀림, 괴롭힘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용태와 박한샘(1997)은 집단따돌림의 형태를 특정인을 소외시키거나 고립시키는 것과 같은 은밀한 형태와 집단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로 분류하였다. 모리타(1998)는 일본의 이지메를 심리적 장난형, 심리적 이지메형, 물리적 장난형 및 물리적 이지메형으로 분류했으며(김석진, 1999에서 재인용), 황성숙(1998)은 소외형, 협박형, 놀림 조롱형, 심한 장난형, 강제형으로 나누었고, 김석진(1999)의 연구에서는 비폭력적 심리적 집단따돌림과 폭력적 물리적 집단따돌림으로 분류하였으며, Crick과

Grotper(1995)는 신체적, 관계적 집단따돌림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최은숙(1999)은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 집단따돌림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우디(1999)는 소외형, 욕설-협박형, 조롱형, 장난형, 강제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유형을 여러 학자들의 분류 중 공통적으로 언급한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유형의 특징 차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외형은 은밀하고 은근하게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가장 흔한 집단따돌림 유형이다. 언어형은 놀림, 조롱 또는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유형으로서 주로 언어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이다. 신체형은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몸을 이용한 심한 장난, 강탈이나 구타가 위주가 되는 따돌림 유형이다.

둘째로, 언어형과 신체형은 행동 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개인과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다(김석진, 1999; 박경숙 등, 1998; 황성숙, 1998). 김석진(1999)의 연구에서도 소외형은 여학생이, 언어와 신체형은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외형은 잘난 척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유형에 대해 지배와 인정에 대한 욕구, 자기보호의식이 강한 유형이 가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언어형과 신체형은 충동적인 폭력에 더 가까운 유형이므로 기존 학교폭력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즉 이 유형의 집단따돌림은 가해자의 특별한 심리적인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습관적 폭력과 유사하다. 한편 황성숙(1998)은 소외형의 경우 다수에 의해 행해지는 발생 빈도가 높은 반면, 언어형과 신체형은 한 명 또는 소수에 의해서 행해지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왔다. 물론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변인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 양상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연구들에서 밝혀진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인

가해자 특성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성격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공격성, 권력욕구, 충동성 등이다(강은희 등, 2002; 이상균, 1998; 조성호, 1999; Ferrington, 1993; Olweus, 1994). 가해행위에 내재한 공격성의 심리적 동기로는 첫째, 힘과 지배의 욕구, 자기보호 의식, 경쟁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이 따돌림 피해유형의 하나인 타인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아이와 충돌할 가능성을 높인다(Olweus, 1994; Smith, 1991).

둘째,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는 행위자의 내적 분노, 욕구좌절로 인한 반항심과 적개심(조성호, 1999),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만(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의 표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이러한 것들의 분출구로서 동료에 대한 욕설, 언어적 폭력 혹은 극단적인 모욕 등과 같은 언어적 공격 행동이나 신체적 공격 행동으로 표현되어 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는 부모의 공격

성, 처벌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였거나(조성호, 1999),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낮은 공감력(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Olweus, 1994)에서 나올 수 있다. 즉 폭력 부모의 행동 모방과 강화, 혹은 폭력에 대한 잘못된 가치, 왜곡된 사고 등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들일 수 있다(조성호, 1999).

넷째, 인간의 정서-행동-신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이루어진다(Ellis, 1973). 따라서 인간의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 행동은 그 개인 자신의 신념 체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은 크게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대인관계 일반과 타인에 대한 경직된 신념 및 완벽주의로 분류된다.

부정적인 자기 개념은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무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신념이며,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타인의 인정과 평가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여 타인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끔찍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대인관계 일반과 타인에 대한 경직된 신념 및 완벽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적이고 비판적, 거부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모습이나 결점, 허점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신념이다. 일반적으로 따돌림 가해자에게서 보이는 역기능적 신념으로는 과도한 타인의 인정요망, 높은 타인기대와 완벽성, 피해의식 등이 있다(김혜원, 이해경, 2000). 가해 학생들은 대체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하며 또래관계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즉, 따돌림을 가하는 것은 자기 보호적 성격보다는 자기 과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아주 밀착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밀착된 또래집단에게 자신

의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약한 친구를 공격대상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크다(Slee & Rigby, 1993).

피해자 특성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대표적인 특성들은 내성적, 부정적 자기개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등이다(Boulton & Smith, 1994; Matsui, Kakuyama, Tsuzuki, & Onglatco, 1996; Sharp, 1996).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의 피해자가 지닌 특징들은 불안, 무력감, 분노, 외로움, 우울 등으로 이러한 감정들은 동료집단과의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도록 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학교 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는 Olweus(1994)가 말한 ‘수동적 혹은 복종적 피해자’(passive or submissive victim)로 볼 수 있다. 자신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 복종적인 이들의 반응은 강한 아이들의 공격 표적이 되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이들은 또래보다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공격적이거나 반격할 여력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Boulton & Smith, 1994; Matsui et al., 1996).

또한 이와는 상반되는 특성으로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들은 잘난 척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일방적인 태도가 주위와 어울리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동료들과 충돌함으로써 다수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스스로가 지닌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주변을 자극하여 대결 국면을 형성한다(Hodge, et al., 1999).

관계성 요인

지금까지 집단따돌림 연구의 대부분이 주로 가해자의 특성(예: 자기에 성격, 지배성, 권력 등)을 다룬 연구들(강은희 등, 2002; 조성호, 1999; Olweus, 1994)과 피해자의 특성(예: 자존감, 학업성적)을 다룬 연구들(Boulton & Smith, 1994; Matsui et al., 1996; Sharp, 1996)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집단따돌림이 가해자의 요인 때문이라면 그는 모든 상대방을 따돌려야 하고 낮은 자존감이라는 피해자 요인 때문이라면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집단따돌림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가해자, 피해자 효과의 크기뿐 아니라 관계성 효과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집단따돌림 연구에서도 연구의 초점이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그들의 관계 변인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상호성(reciprocity)이란 양자관계에서 한쪽의 행동대로 다른 한쪽이 대응함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예: 호감, 싫어함), 구체적 행동(예: 도움, 집단따돌림), 특성의 지각(예: 성격판단) 등은 상당히 상호적이라는 증거가 많다. 대인간의 행동에서도 상호성은 자주 나타난다. 고재홍(1997)은 동료관계에서 정적 상호성(예: 도움 행동)과 부적 상호성(예: 피해 행동) 중 부적 상호성이 더 강하게 작동함을 발견하였다. 정윤주(2004)는

또래집단에서의 교우관계 상호성을 알아 본 결과, 가장 친한 친구사이에서 상호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상호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따돌림은 일상적 상호작용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피해와 가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집단따돌림에서 가해-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재선과 정문자(2002)의 연구에서도 11.4%에 해당하는 아동이 가해와 피해성을 동시에 보였고,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연구에서도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자신이 친구를 따돌린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22.1%로서 피해경험만을 가진 학생(7.5%)보다 3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따돌림에서 가해-피해 중첩 집단은 가해와 피해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가해만 하는 집단보다 가해 평균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당사자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전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보다 한번 폭력상황에 노출된 개인이 비행적 생활양식을 습득한 후 계속하여 피해-가해 교차 행위 양식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강한 적개심과 피해의식, 반항심이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자신이 입을 피해를 타인에 대한 가해로 보상받거나 혹은 또래폭력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친구에 대한 가해에 가담하기도 한다(이상균, 1998). 또한 이 가해-피해 집단은 대인관계 성향에서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타인을 조정하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희 등, 2002). 한편, 지나친 따돌림 가해 행위가 오히려 집단에게 위협적이 되어 따돌림을 당할 수

도 있고, 따돌림 피해상황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가해에 동참하게 할 수도 있다. 가해-피해 중첩 현상의 보편적인 이유는 따돌림을 당한 아이가 따돌림에서 벗어나면 정상적으로 집단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음의 표적을 찾아내 다른 동료와 함께 따돌림에 참가하게 되며 그것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공격받은 아픔이 응어리가 되어 순환되기 때문이다(한중철, 김인경, 2000; 황성숙, 1998). 이들이 겪을 심리적 혼돈은 단순한 가해, 피해 집단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부적절한 행동방식, 왜곡된 신념이 어느 집단보다 가중될 염려가 있다. 동시에 이들의 가해, 피해경향은 더 과격해지고 정도가 심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을 상호성 지표로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따돌림도 아동 집단의 중요한 대인행동 중 하나라면, 다른 감정, 특성 및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상호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집단따돌림 행동이나 의도의 상호성을 측정하면, 집단따돌림의 가해-피해 중첩효과의 크기를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물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집단따돌림의 발생에서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요인 중 어느 쪽의 원인이 더 큰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집단따돌림의 유형에 따라 발생 원인의 근원이 다른지를 보고자 하였다. 둘째, 집단따돌림 가해자들의 공통적 성격 특성이 무엇이고, 피해자들의 공통적 성격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로, 집단성원간 상호

작용 행동은 상호적이란 증거가 많다. 최근의 집단따돌림 의도 연구(예: 박나영, 고재홍, 2005)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인 중 관계성 요인이 크다면, 상호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즉 모든 유형의 집단따돌림 행동에서 상호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인 A가 또 다른 친구인 B를 때렸다”면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아마도 그 행동(때림)의 원인은 A(행위자), 혹은 B(표적), 혹은 A와 B의 특별한 관계(관계성) 때문일 것이다. 만약 A가 B, C, D... 를 모두 때리면, 그 행동은 A의 어떤 측면 때문에 유발된 것이다. 즉 가해자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A가 B뿐만 아니라 C, D... 등 모두에게도 맞으면, A는 그 행동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피해자가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A는 다른 사람(C, D)은 때리지 않고 B만 때리거나 A도 다른 사람(C, D)에게는 맞지 않으나, 특정인 B에게만 맞는다면, 그 행동은 A와 B의 특별한(unique) 관계 때문일 것이다.

Kenny와 Acitelli(2001)는 7개의 연구를 종합하여 재분석한 결과, 특정행동이 행위자 요인 때문에 유발되는 비율이 31%, 특정표적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2%, 둘 간의 특별한 관계성 때문에 유발된 비율이 35% 가량 된다고 주장하였다. Olweus(1978)는 아동 폭력은 특정 양자(dyads)에서만 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가해자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특성보다는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가 폭력행동의 주요 발생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집단따돌림을 통합적으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Coie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성(행동)은 행위자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11%, 표적이 유발한 요인 15%, 양자간의 관계성 요인에 의해 유발된 공격행동의 비율이 16%임을 밝혔다. Coie 등(1999)의 연구는 공격행동에서 관계성 효과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효과만큼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초점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관계” 변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관계모형을 적용하여 집단따돌림 의도를 연구한 박나영과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은 가해자(15.8%)나 피해자(11%)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정보보다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45.6%)에서 비롯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관계” 변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만약 특정 행동(예: 폭력행동)의 유발요인 중 둘 간의 특별한 관계성 요인의 설명변량이 크다면, 기존의 행위자 중심의 연구와 피해자 중심의 연구는 충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즉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의 경우도 가해자 특성이나 피해자 특성만을 연구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양측의 특별한 어떤 관계가 그 행동(예: 폭력)을 유발하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의 연구에서도 해당 행동의 유발에 기여한 가해자, 피해자 및 양자간의 관계성 효과의 크기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가해자 중심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피해자 중심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혹은 양자가 모두 포함된 대인관계 중심의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은 그 양상이 연령별로 다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적절한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각 집단따돌림 유형별 가해자, 피해자 및 양자간의 관계성 효과의 크기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집단따돌림 현상은 복잡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실제로 집단따돌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황적 제약이 따라 본 연구에선 실제 집단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행동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은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이 유발된다고 생각되어 직접적인 경험인 아닌 의도를 측정해 행동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물론 의도와 행동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행동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변인 중 의도가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어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행동의 발생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효과의 크기가 초등학교 남, 여학생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집단따돌림에 관련된 여러 요인 중 개인차 변인(예: 자존감)이 가해자 요인과 관련되는지 혹은 피해자 요인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호감의 상호성”과 같이 집단따돌림에서도 상호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유형별로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요인의 설명변량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남녀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학생들의 어떤 성격 특성이 각각의 집단따돌림 유형별로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유발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즉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와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난 집단따돌림의 상호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상대방을 따돌림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큰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역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문제의 답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특징과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기존의 연구 방법보다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집단내 개인간의 상호작용(행동이나 지각)을 살펴보는 새롭고 효율적인 분석들이 Kenny와 La Voie(1984)의 사회관계모형이다. 다음에서는 이 모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다.

사회관계모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것들이었다. 즉 가해자 특성(예: 공격성)과 집단따돌림 행동의 경험 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거나, 피해자 특성(예: 자존감, 사교성)과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 수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들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실제집단을 구성하여 각 구성원들의 상호평가에 의

한 집단따돌림의 (가해)의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제의 모든 집단 속에서 구성원들은 상호 평가를 한다. 즉 이런 경우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평가자이면서 서로는 상대방에게는 표적인물인 셈이다. 집단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자가 여럿이고, 표적인물도 여럿인 자료가 나오는 셈이다. 이를 라운드 로빈(round-robin) 방식이라 부른다. 이런 형태의 자료(실제로는 자료 매트릭스)가 있어야 가해자 효과, 피해자 효과 및 관계성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자료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SOREMO (Social Relations Model, Kenny, 2004)라고 부르는 통계패키지가 필요하다. SOREMO의 주요 결과는 변량과 상관계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량의 경우는 변량분석과 마찬가지로 평정치의 전체변량을 가해자 효과, 피해자 효과, 관계성 효과 및 오차로 분할된다. 각 효과는 그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상대적 변량(relative variance) 크기가 0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one-sample *t*-test)한다.

가해자 효과

만약 모든 행위자가 특정 대상(피해자)에 부여한 집단따돌림 평정치가 똑같다면(예: 5.0), 행위자 효과(변량)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변인(집단따돌림) 평정에서 가해자 변량이 충분히 크다면, 가해자마다 평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집단따돌림 평가에서 다른 가해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특정 가해자(예: A)가 모든 상대방에 대해 따돌림 의도가 높다면, 따돌림은 가해자 A가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효과

만약 특정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 비해 모든 가해자들로부터 평균적으로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평정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변량이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든 가해자들(예: B~D)이 다른 피해자 보다는 특정 피해자(예: A)에 대한 따돌림 의도가 높다면, 따돌림은 A가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성 효과

만약 집단내 집단따돌림에서 특정 가해자(예: B)가 다른 대상들(예: C, D)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특정 피해자(예: A)만을 따돌리고 싶어하고, 다른 행위자들(C, D)은 그 피해자(A)를 따돌리고 싶은 의도가 없다면, 둘 간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생기는 관계성 요인의 변량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특정 피해자(예: A)가 다른 대상들(예: C, D)에게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데 특정 가해자(예: B)에게만 따돌림을 당한다면 이 둘 간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생기는 관계성 요인의 변량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즉 관계성 효과란 구성원들 간의 일어나는 행동에서 특정 양자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한 변량이다.

개인차 변인과 가해자 효과간의 상관계수

참여자들이 지닌 개인차 변인(예: 자존감)과 가해자 효과간의 상관계수는 그의 개인차 변인에 따라 그가 다른 구성원들을 집단따돌림 시키려는 경향성이 다름을 알려 주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개인차 변인인 자존감과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효과간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는 다른 구성원들을 따돌림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개인차 변인과 피해자 효과간의 상관계수

참여자가 지닌 개인차 변인(예: 자존감)과 피해자 효과간의 상관계수는 그 개인차 변인에 따라 그가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집단따돌림 당할 가능성이 다름을 알려 주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개인차 변인인 자존감과 피해자 효과간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는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해자 효과와 피해자 효과간 상관계수

상호성(reciprocity)이란 양자관계에서 한쪽의 행동대로 다른 쪽이 대응함을 의미한다. 이때 행동은 다양한 것으로서 감정(예: 호감), 구체적인 행동(예: 집단따돌림), 특성 지각(예: 성격 판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해자 효과와 피해자 효과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면 양자간 상호성(Kenny는 이를 일반화된 상호성-generalized reciprocity-이라 부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¹⁾. 즉 만약 가해자 효과와 피해자 효과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면, 집단따돌림 가해의도가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다른 사람들을 집단따돌림 시키고 싶은 경우, 다른 사람들도 A를 집단따돌림 시키고 싶다는 의미가 된다.

1) Kenny(1994)는 일반화된 상호성과 구분되는 것으로 특정인과 특정인간의 상호성을 양자간 상호성(dyadic reciprocity)이라 불렀다. 이는 A가 B를 따돌림 시키면 B도 A를 따돌림시킨다는 의미이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의 창원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총 13개 학급)의 같은 반에 속한 4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된 동성의 남학생 52집단(208명)과 여학생 45집단(180명) 등 총 97집단의 388명이었다.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동성 4인으로 구성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따돌림 의도를 평가하는 라운드 로빈 설계(Kenny, 1994; Kenny & La Voie, 1984)를 사용하였다.

절차

먼저 연구대상들에게는 연구가 시작되기 약 일주일 전에 집단적으로 자신의 성격특성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물음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같은 학급내 동성 학생들 중 무작위로 4명씩 한 집단을 구성하여 한 집단씩 약속된 날짜에 후 학교상담실에 오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상담실에 오는 순서에 따라 미리 준비된 A, B, C, D의 명찰 중 하나를 각각 가슴에 달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자는 이들을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둥글게 배치된 좌석에 차례로 앉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이 동료 학생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특별히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킨 후 자기를 제외한 집단 내 동료들에 대한 집단따돌림 의

도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즉 A에게는 B, C, D에 관한 설문지를, B에게는 A, C, D에 관한 설문지를, C에게는 A, B, D에 관한 설문지를, D에게는 A, B, C에 관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각각 A, B, C, D가 누구인지를 잘 살핀 후, 평소에 어느 정도 집단따돌림하고 싶은지를 각각의 준비된 설문지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먼저 집단성원 A는 타인평가 설문지 B를 평가하고, 그 다음 C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D를 평가하였다. 집단성원 B는 첫 번째 A를 타인평가 설문지에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 C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D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4인 집단에서 평가자 A~D의 기호배정이 무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집단 내에서 타인평가의 순서를 상쇄(counterbalancing)시키는 절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과 자존감 측정을 위한 두 종류의 자기평가 설문지와 집단 내 모든 구성원 각각에 대한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는 설문지 등 모두 3종류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성격측정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성격과 집단따돌림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성격의 5요인 이론(예: McCrae & Costa, 1987; Salgado, 1997)을 근거로 제작된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EO-PI-R(Costa & McCrae, 1992)을 변안하여 표준화한 NEO 인성검사(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에서 모두 25문항(각 요인마다 5문항)을 선정한 다음, 초등학교 5-6학년에 적합하도록 부분적으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외향성을 측정하는 5문항들은 “나는 부끄럼이 많다”, “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싫어 한다” 등이었다. 정서 안정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성격이 급하다”, “때때로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는 후회 한다” 등이었다.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다”, “나는 수수께끼 푸는 것을 좋아 한다” 등이었다. 호감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 한다” 등이었다. 성실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어떤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킨다”, “나는 안이하고 게으르다” 등이었다. 피험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7점)로 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성격특성의 신뢰도 계수는 신경증(α)은 .60, 외향성(α)은 .50, 개방성(α)은 .59, 친화성(α)은 .72, 성실성(α)은 .59로서 문항수가 작아 신뢰도가 만족할 만큼 높지는 않았다.

자존감

많은 연구들은 집단따돌림의 피해자 특징으로 자존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성격특성과 별도로 개인의 자존감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존감 측정은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Rosenberg(1979)의 4점 척도를 박미영(1999)이 변별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7점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와 같이 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5문항과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와 같이 부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험자들

에게는 각 문항에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7점)로 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α)는 .76이었다.

집단따돌림 의도

집단따돌림이라는 현상이 미묘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황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집단따돌림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최은숙(1999)이 사용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질문지 항목을 참조하여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용어로 쉽게 수정 보완하여 유형별(소외형, 언어형, 신체형) 집단따돌림 의도를 묻는 5문항씩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집단따돌림 행동경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 문항을 살펴보면 언어형 따돌림 문항으로 ‘나는 A의 별명, 신체특징을 가지고 큰 소리로 놀리고 싶다’, ‘나는 A에게 ‘꺼져 버려’ ‘꼴보기 싫어’ 라는 말을 하고 싶다’, ‘나는 A에게 다른 애들 앞에서 놀리며 망신주고 싶다’, ‘나는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싶다’, ‘나는 A에게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리고 싶다’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소외형 따돌림 문항으로는 ‘나는 A가 묻는 말에 일부러 대답하고 싶지 않다’, ‘나는 A가 아는 척 하면 일부러 무시하고 싶다’, ‘나는 놀 때 A를 일부러 끼워주고 싶지 않다’, ‘나는 A의 나쁜 점을 여러 친구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A와 놀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형 따돌림 문항으로는

‘나는 A에게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고 싶다’, ‘나는 A를 툭툭 치거나 쿡쿡 찌르고 괴롭히고 싶다’, ‘나는 A에게 내 숙제를 대신 해 오라고 하고 싶다’, ‘나는 A의 물건을 강제로 뺏고 싶다’, ‘나는 A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싶다’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전체 집단따돌림 의도척도(15문항)의 신뢰도 계수(α)는 .94이었고, 소외형 집단따돌림 의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87, 언어형 집단따돌림 의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87, 신체형 집단따돌림 의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81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Kenny(2004)의 윈도우용 SOREMO라고 불리는 특별히 고안된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남녀 및 집단따돌림 의도의 유형별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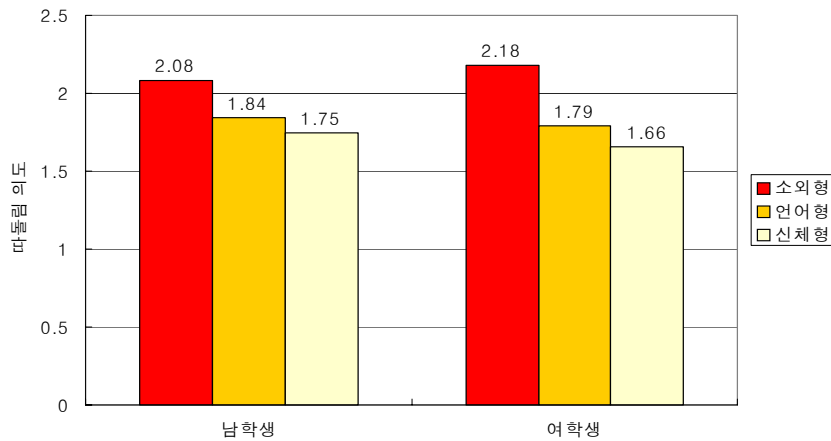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유형별 집단따돌림의 차이

표 1. 남녀 및 유형별 집단따돌림 의도의 평균 (표준편차)

따돌림유형	남학생	여학생	전체
소외형	2.08(1.32)	2.18(1.47)	2.13(1.39)
언어형	1.84(1.14)	1.79(1.21)	1.82(1.17)
신체형	1.75(1.04)	1.66(0.99)	1.71(1.01)
전체	1.89(0.45)	1.88(0.48)	

따돌림 의도 점수범위는 1-7.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따돌림 의도가 높은 것임.

남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의 하위척도인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 따돌림 의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및 유형별 동료에 대한 집단따돌림 의도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2×(3)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집단따돌림 유형별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2320)=202.51, p<.01$. 이를 사후분석(LSD) 결과, 소외형($M=2.13$)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언어형($M=1.82$), 신체형($M=1.72$)의 순이었다, $p<.01$. 셋째, 성과 따돌림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2320) = 10.42, p < .01$. 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에서 보듯 유형별 집단따돌림 의도크기는 남녀 두 집단 모두 소외형이 가장 많고 언어형 집단따돌림, 신체형 집단따돌림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LSD) 결과,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유형별로 따돌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남학생 $F(2, 1246) = 73.78, p < .01$, 여학생 $F(2, 1074) = 125.36, p < .01$. 즉 여학생의 경우에서 소외형, 언어형, 및 신체형 집단따돌림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성분분석

전체 집단따돌림 및 집단따돌림 유형별 발생 원인을 가해자 요인, 피해자 요인,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성 요인으로 분할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여학생 집단의 경우 가해자 요인(18%)이나 피해자 요인(4%)보다 관계성 요인(33%)의 설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돌림의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요인보다 관계성 요인이 높았다. 특히 소외형 따돌림(47%)과 언어형 따돌림(35%)에 있어서는 관계성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표 2. 집단따돌림 유형별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요인의 설명비율

	가해자	피해자	관계성	오차
전체따돌림				
남학생	.21*	.08*	.18*	.45
여학생	.18*	.04	.33*	.27
전 체	.20*	.06*	.25*	.49
소외형 따돌림				
남학생	.21*	.10*	.19*	.50
여학생	.12*	.04	.47*	.37
전 체	.17*	.07*	.32*	.45
언어형 따돌림				
남학생	.23*	.07*	.21*	.50
여학생	.24*	.03	.35*	.38
전 체	.23*	.05*	.27*	.27
신체형 따돌림				
남학생	.21*	.07*	.19*	.49
여학생	.21*	.05	.22*	.51
전 체	.22*	.06*	.17*	.49

* $p < .05$, ** $p < .01$ (일방 검증), 수치는 전체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비율임.

표 3. 가해자의 특성과 집단따돌림 유형별 가해 의도간 상관계수²⁾

유형/성격특성	자존감	호감성	성실성	정서 안정성	개방성	외향성
전체따돌림						
남학생	-.09	-.14	-.04	-.23*	-.02	.03
여학생	.13	-.04	.15	.19	-.14	.15
전 체	.01	-.10	.04	-.18*	-.07	.09
소외형 따돌림						
남학생	-.07	-.07	.00	-.23*	.08	.06
여학생	.18*	-.13	.24*	-.15	-.23*	.17
전 체	-.03	-.09	.09	-.20	-.04	.10
언어형 따돌림						
남학생	-.08	-.16*	.04	-.21*	-.06	.05
여학생	.11	-.01	.15	-.08	-.12	.14
전 체	.01	-.09	.05	-.15	-.08	.10
신체형 따돌림						
남학생	-.11	-.19*	-.10	-.25*	-.10	-.02
여학생	.10	.01	.08	-.10	-.07	.15
전 체	-.01	-.10	-.02	-.19	-.08	.06

* $p < .05$, $df = N - G - 1$, 양방검증(G 는 집단 수).

한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가해자 요인(18%)이 높게 나타난 반면 피해자 요인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형 집단따돌림(24%)에서 가해자 요인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소외형 집단따돌림(12%)은 가해자 요인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가해자 요인, 피해자 요인,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성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과는 달리 가해자 요인(21%)이 관계성 요인(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돌림의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가해자 요인이 관계성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세 가

지 유형 모두에서 가해자 요인의 설명 비율이 20-23% 이었으며, 피해자 요인의 유발 요인은 그보다 낮은 7-10% 정도이었다.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성격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5가지 성격특성이나 자존감 등이 집단따돌림의 가해행동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별 집단따돌림 가해자 요인과 성격특성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3이다.

2) SOREMO에서 산출된 위의 상관계수는 단순 상관

표 3에서 보면, 먼저 여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성격특성 및 자존감은 집단따돌림의 가해 행동과 무관하였다. 따돌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일하게 성격특성은 소외형 집단따돌림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r=.18$), 성실성($r=.24$)이 높은 학생일수록, 개방성($r=-.23$)이 낮은 학생일수록 동료학생을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 집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집단따돌림의 가해 행동은 일부 성격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학생일수록($r=-.23$) 동료학생을 집단따돌림을 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소외형 집단따돌림에서는 정서 안정성($r=-.23$)이 낮은 학생일수록 따돌림 의도가 높은 반면 언어형 집단따돌림과 신체형 집단따돌림의 경우 호감성($r=-.16$)과 정서 안정성($r=-.21$)이 낮을수록 각각의 따돌림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정서 안정성은 세 가지 유형의 따돌림과 모두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성격 특성

유형별 집단따돌림이 피해자의 5가지 성격 특성이나 자존감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단따돌림 의사와 성격특성간의

계수가 아니다. 이는 해당(예: 표적인물) 변량(variance)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수정된(disattenuated) 것이다(Kenny, 1999). 즉 각 변량은 적은 수의 평가대상(예: 성격)과 평가대상(예: 따돌림 의도)을 근거로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평가대상을 가정하여 추정한 상관계수이다. 그러므로 신뢰도에 따라 상관계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수 있고, 그 반대 일수도 있다.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4이다.

표 4에서 보듯, 남녀별 분석에서는 남학생 피해자보다는 여학생 피해자가 자신이 성격특성에 의해 집단따돌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는 유일하게 호감성($r=-.22$)이 낮은 사람일수록 집단따돌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의 경우 호감성이 낮을수록 신체형 따돌림을 제외한 소외형 따돌림과 언어형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른 특성들은 집단따돌림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자존감과 5가지 성격 특성이 집단따돌림 유발 가능성과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특히 자존감($r=-.37$)과 호감성($r=-.42$)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신체형 따돌림이 피해자의 특성과 관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방성, 외향성은 신체형 따돌림 유발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반면 소외형 집단따돌림과 언어형 집단따돌림에서는 자존감($r=-.21$), 호감성($r=-.30$), 성실성($r=-.14$), 정서 안정성($r=-.18$), 개방성 및 외향성($r=-.14$) 모두 집단따돌림 유발 가능성과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특히 자존감, 호감성이 낮을수록 소외형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각각 $r=-.42$, $r=-.51$ 이고, 이때 구성원들로부터 언어형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r=-.50$, $r=-.59$.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집단따돌림을 다룬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난 집단따돌림의 가해 및 피해 행동 간의

표 4. 피해자의 특성과 집단따돌림 유형별 피해 의도간 상관계수

성격특성	자존감	호감성	성실성	정서 안정성	개방성	외향성
전체 따돌림						
남학생	-.11	-.22*	-.06	-.12	-.08	.01
여학생	-.37*	-.42*	-.29*	-.30*	-.25*	-.22*
전 체	-.21*	-.30*	-.14*	-.18*	-.14*	-.08
소외형 따돌림						
남학생	-.11	-.29*	-.07	-.14	-.07	.01
여학생	-.42*	-.51*	-.33*	-.31*	-.32*	-.30*
전 체	-.22*	-.36*	-.16*	-.20*	-.15*	-.17
언어형 따돌림						
남학생	-.16	-.22*	-.08	-.13	-.14	.00
여학생	-.50*	-.59*	-.30*	-.36*	-.33*	-.28*
전 체	-.27*	-.37*	-.15*	-.20*	-.20*	-.10
신체형 따돌림						
남학생	-.06	-.12	-.01	-.07	-.04	.04
여학생	-.26*	-.24*	-.28*	-.28*	-.13	-.10
전 체	-.14*	-.17*	-.12*	-.15*	-.08	-.02

* $p < .05$, $df = N - G - 1$, 양방검증.

표 5. 유형별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크기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	전 체
남자집단($G=52$)	.45*	.26+	.26+	.30*
여자집단($G=45$)	.08	.15	.17	.15
전체집단($G=97$)	.33*	.21*	.21*	.25*

+ $p < .07$, * $p < .05$, 양방검증.

상호성 확인을 위해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크기를 남녀 및 유형별로 알아보았다(표 5 참조).

표 5에서 보듯, 남학생 집단에서는 모든 종류의 집단따돌림에서 상호성이 유의하게 나

타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대체로 집단따돌림 의도의 상호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소외형 집단따돌림의 경우 남학생 집단($r=.45$)의 상호성이 여학생 집단($r=.08$)의 상호성보다 경계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Z=1.90, p<.06$. 그러나 언어형 따돌림과 신체형 따돌림의 상호성의 크기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각 $Z=0.56, Z=0.43, ns$.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모형(Kenny, 1994)을 적용하여 남녀 초등학생 집단에서 유형별 집단따돌림의 크기를 알아보고 집단따돌림 유형별 행동의 발생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효과의 크기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살펴 보았다. 특히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원인의 비율을 살펴보고, 남녀 학생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로 유형별 집단따돌림 발생과 관련된 개인차 변인(성격특성과 자존감)이 가해자 요인과 피해자 요인 중 어느 쪽과 관련이 큰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크기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간 따돌림도 높다는 일부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집단따돌림의 유형별 크기는 남녀 학생 모두 소외형 집단따돌림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언어형, 신체형 순이었다. 특히 남녀별 비교에서 따돌림 유형별 크기의 차이는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은 소외형 집단따돌림을 많이 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신체형 집단따돌림이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정은순 등, 2002)와 유사한 것이다.

둘째, 집단따돌림 발생 원인에 대한 성분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집단따돌림 의도는 가해

자(19.5%)와 피해자 요인(6.1%)에 의해 유발되는 정도보다는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25.1%)에서 비롯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따돌림 유형 및 남녀별 분석에서는 남녀차이가 일부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가해자 요인이 관계성 요인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 집단의 경우 관계성 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언어형 따돌림에서 관계성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동의 학교폭력(공격성)의 원인을 성분 분석한 연구들(예: Coie et al., 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Coie 등(1999)의 연구에서 초등학생(평균연령 9.3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공격성)은 가해자(행위자) 요인에 의해 약 11%, 피해자(자극) 요인에 의해 약 15%,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성에 의해 약 16%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Kenny와 Acitelli(2001)는 집단내 구성원간의 행동교류를 다룬 7개의 연구를 종합하여 재분석한 결과, 특정행동(예: 웃는다)이 행위자 요인 때문에 유발되는 비율이 31%, 특정표적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2%,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성 때문에 유발된 비율이 35% 가량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의도를 분석한 박나영과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해자 15.8%, 피해자 11%, 관계성 45.6%의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가해자 요인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치(예: 상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해자 중심 혹은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포함되는 집단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집단따돌림과 관련되는 가해자의 성

격변인을 살펴 본 결과, 대체로 따돌림 가해 학생의 성격 특징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한 특성을 지닌 학생이 집단따돌림 가해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이 모두 가해 행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집단따돌림을 할 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나영과 고재홍(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정서 안정성이 낮은 아동일수록 집단따돌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호감성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의 의도가 낮았고, 여학생의 경우 자존감이 높을수록 소외형 집단따돌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춘재, 박금주, 2000)와 유사하다. 또한 성실성이 높을수록 폐쇄적일수록 소외형 집단따돌림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높고 성실한 반면 개방적이지 못한 성격특성을 지닌 아이들은 소외형 집단따돌림을 할 의도가 높은 것이다.

넷째, 피해자의 성격 변인과 유형별 집단따돌림의 상관계수를 알아보았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서 뚜렷하게 성격특성에 따라 피해자가 결정되는 듯하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호감성이 낮은 여학생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호감성만 소외형 따돌림, 언어형 따돌림과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특성 중 두드러진 특징은 여학생 집단의 소외형 따돌림의 경우 자존감과 성실성 특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낮을수록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반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을 다룬 연구에서 가해행동과 피해 행동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따돌림의 상호성의 크기를 알아보았다.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연구에서도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자신이 친구를 따돌린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이 피해경험만을 가진 학생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도 초, 중, 고교생의 집단따돌림 조사에서 가해-피해 중첩집단이 전체의 27.8%로서, 가해자 비율(21.5%)과 피해자 비율(1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따돌림 가해-피해 중첩 집단은 가해만 하는 집단보다 가해행동의 평균횟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나영과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도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자신이 친구를 따돌린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집단따돌림이 매우 상호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상호성은 남녀의 구별이 뚜렷했다. 남학생 집단은 3유형 모두에서 상호성이 나타났으며, 또한 크기도 소외형 따돌림의 경우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집단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따돌림을 시키는 남학생이 다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는 쉽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은 자존감이 높고 성실한 반면 배타적인 학생에 의해 따돌림을 받을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학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따돌림을 유도한 학생에게 맞서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남학생 집단의 경우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을 비율적으로 분류해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의 집단따돌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집단따돌림 가해자 혹은 집단따돌림 피해자를 선정하여 경우를 분리하여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특성 혹은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집단따돌림과 같은 현상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집단따돌림 연구에서 각각 가해자 피해자 특성을 다루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관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연구로 연구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따돌림은 가해자가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간의 상호성을 확인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만약 집단따돌림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간 특별한 관계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높고 따돌림도 ‘상호성’이 크다면 (즉 가해자-피해자 역전현상) 집단따돌림 치료 프로그램의 선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현재의 가해자 중심 혹은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보다는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포함되는 ‘집단상담’, ‘역할상담’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들은 집단따돌림의 원인 확인과 그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는 집단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따돌림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서 집단따돌림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없었던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피해자, 및 양자간의 관계성 효과의 크기를 집단따돌림 유형별로 알아보았다. 즉 어떤 유형의 집단따돌림이 가해자 요인이 큰지, 어떤 유형의 집단따돌림이 피해자 요인에 책임이 있는지 이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어떤 유형의 집단따돌림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격요인과 관련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집단따돌림 연구보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세가지 유형의 집단따돌림 분석결과 소외형과 언어형은 유사한 결과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신체형은 다른 결과형태를 띄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신체형 따돌림(학교폭력과 유사)과 왕따(진정한 의미의 따돌림)는 구분되는 개념인 듯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학교폭력,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은 분명한 구분의 기준없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개념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빅 5의 성격요인을 측정함에 있어, 전체 240문항 중 5가지 성격특성의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5문항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문항 수가 작아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이라는 현상이 미묘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황적 제약이 따라 실제 집단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행동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따돌림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그러

므로 집단따돌림 행동의도와 실제 집단따돌림 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소외형, 언어형 및 신체형 따돌림 의도가 높은 것은 실제 따돌림 행동의 연구결과(예: 김석진, 1999; 박경숙 등, 1998; 황성숙, 1998)와 일치한 점으로 볼 때, 비록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였으나 이는 행동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집단따돌림을 가해자, 피해자 요인으로 보지 않고 관계성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지 못했으므로 그 관계성을 초래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보다 여러 측면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크기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호성의 남녀 차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 요인에서 가해자가 유발하는 경향이 큰 반면 성격특성으로는 피해자의 성격특성이 집단따돌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른 성격의 5요인 이외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가우디 (1999). 왕따리포트. 서울: 우리교육.
강은희, 이은희, 임은정 (2002).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45-460.
고재홍 (1997). 우리는 받은 만큼만 주는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효

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53-75.
구본용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 문제 토론 광장 발표논문집.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석진 (1999).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요인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 대화의 광장(편),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노성호 (2000). 집단따돌림을 통한 피해와 그 영향. 한국피해자학회지, 9(2), 5-30.
모리타 (松浦善滿, 1998). 青少年問題, 日本 青少年問題研究會, 45(12), 25.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 NEO 인성검사 (NEO PI-RS). 서울: PSI컨설팅.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와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나영, 고재홍 (2005). 남녀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발생원천의 성분비교: 사회관계모형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3(1), 43-54.
박미영 (1999).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영역별 우열 및 자기수용과 전반적인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재선, 정문자 (2002).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5), 123-138.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편),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 이상균 (1998). 학교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정윤주 (2004). 학령기 아동의 또래수용 및 가장 친한 학급 친구의 상호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2(7), 19-32.
- 정은순, 김이순, 이화자, 김영혜, 송미경 (2002). 초등학생들이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8(4), 422-434.
- 조선일보 (2004. 01. 13). 초등학생 학교폭력 중고생 보다 심각.
- 조성호 (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의 허와 실.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모색 심포지엄. 한국심리학회 발표논문집.
- 최미경, 도현심 (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3(5), 51-65.
- 최은숙 (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황성숙 (1998). 학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4, 139-151.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Coie, J. D., Cillessen, A. H., Dodge, K. A., Hubbard, J. A., Schwartz, D., Lemerise, E. A., & Bareman, H. (1999). It takes two to fight: A test of relational factors and a method for assessing aggressive dyads. *Child Development*, 35, 1179-1188.
- Coie, J. D., Lochman, J. E., Terry, R., &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783-792.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Ferrington, D. P. (199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In M. Tonry &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Vol 17, pp. 381-45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dges, E. V.,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A social relations analysis*. NY: The Guilford Press.
- Kenny, D. A. (2004). <http://users.rcn.com/dakenny/srmp.htm>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enny, D. A., & La Voie, L. (1984). The social relations model. In L. Berkowitz(Ed.), *Advances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8, pp. 142-182). Orlando, FL: Academic Press.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 Matsui, T., Kakuyama, T., Tsuzuki, Y., & Onglatco, M. (1996). Long-term outcomes of early victimization by peers among Japanese male university students: Model of a vicious cycle. *Psychological Reports*, 79, 387-395.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ying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5, 1171-1190.
- Parker, J.,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algado, J. F. (1997).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job performance in the European commun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30-43.
- Schafer, M., Korn, S., Smith, P. K., Hunter, S. C., Mora-Merchan, J. A., Singer, M. M., & Meulen, K. (2004). Lonely in the crowd: Recollections of bully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79-394.
- Sharp, S. (1996). Self-esteem, response style and victimization: Possible ways of preventing victimization through parenting and school based training programm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7, 347-357.
- Slee, P. T., & Rigby, K. (1993). The relationship of Eysenck's personality factors and self-esteem to bully-victim behavior in Australian schoolboy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4(2), 371-373.
-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243-248.
- Wentzel, K. R., & Asher, S. R. (1995). The academic lives of neglected, rejected, popular and controvers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6, 754-763.
- 1 차원고접수 : 2006. 3. 20
수정원고접수 : 2006. 5. 15
최종게재결정 : 2006. 6. 02

A Component Analysis of Three Types of Bully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 Application of Social Relations Model

Kyoung-Hee Lee

Jaehong Ko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urported to examine the degree to which proportion of bullying takes place among harmer, victim, and their relationship in three types of bullying. It was also investigated which personality traits is related to bullying and victimizing behaviors and the reciprocity of bullying. The subjects were the 5th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Changwon city.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52 groups of all 4 boys(208 boys) and 45 groups of all 4 girls(180 girls) respectively. Each group with 4 students of the same sex. To begin with, groups were instructed to fill in the questionnaire about their personality traits and self-esteem. And then they rated all other members in their group via a round robin method. The major results as follows: First, harmer effect was about 16%, victim effect was about 6%, and their relationship effect was about 25% in bullying. Specifically, linguistic bullying was more triggered by their relationships, and harmer effect was more obvious in the boys than in the girls. Second, personality traits presumably related to bullying behaviors were not salient. But the girls who were lower in self-esteem and agreeableness were more likely to be bullied by peers. The boys who were less agreeable were more likely to become the target of alienation and linguistic bullying. Overall, there were stronger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bullying among the girls than those among boys. Lastly, the boys showed reciprocity in all types of bullying. The reciprocity was particularly remarkable in an alienation type. Meanwhile, the girls showed less reciprocity in all kinds of bullying.

Key words : *bullying, Social Relations Model, reciprocity*